

■ ■ ■ 감동적인 합격기

[2017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렬(전국) 합격]

어려움들을 이겨낸 경우에만 합격으로 이어진다



김재남

- 압구정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재학 중
- 2017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전국)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일반행정 전국 직렬에 합격한 수험생입니다. 이 수기가 행정고시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II. 과목별 공부- PSAT 및 헌법

PSAT는 우선 컨디션 관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푼다고 해도, 긴장을 많이 함에 따라 또는 그 날 당일 몸이 안 좋다면 점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가지기 위해 실전모의고사를 본다거나, 자신만의 긴장완화 방법을 마련한다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언어논리

언어논리 과목은 5급 공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그나마) 익숙한 과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어논리는 수능영역의 국어영역 비문학과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소한 자료해석, 상황판단보다 익숙하며 독해력 향상법과 같은 시중에 공부 방법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언어논리의 경우에는 언어라는 범주와

논리라는 범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공부방법을 살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언어의 경우에는 결국 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독해력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문을 읽으면서 각 문단의 중심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이 풀어서 익숙해진 PSAT 지문뿐만 아니라 수능기출 지문으로 독해력 훈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논리의 경우에는 학원 강사의 논리특강을 들으면서 기본 논리구조를 이해 한 후, 많은 논리 문제를 적용하면서 논리문제를 기계적, 구조적으로 풀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2.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제가 시간투자를 가장 많이 했던 과목입니다. 합격하신 많은 분들이 PSAT의 3가지 과목중 자료해석이 가장 시간대비 점수의 효율이 높다고 한 바 있습니다. 언어논리, 상황판단과 달리 점수의 향상 폭이 큰 과목이고,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자료해석의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자료해석을 기출분석과 계산연습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출분석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을지, 빠른 풀이방법을 실제로 내가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이 때,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문제별로 체크하고,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주 틀리는 지를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빠른 풀이방법을 실전에도 적용하기 위해, 계산연습을 하였습니다. '비타민'이라는 계산

연습을 토대로, 마땅한 풀이방법이 없을 경우 손으로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상황판단이라는 한 과목이라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으로 쪼개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판단의 과목내에서 각 문제의 스타일이 다르며, 공부방법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법조문유형, 퀴즈유형, 이해유형, 계산유형으로 4가지로 나누어 유형별로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출문제를 5개년 정도 풀면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분류하고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어떤 유형을 주로 틀리는지, 어떤 유형에서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지등을 분석함으로써,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법조문유형과 퀴즈가 약했기 때문에, 법조문의 경우에는 법조문의 유형만 따로 모아, 법조문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생각하고 계속 풀어봄으로 법조문을 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한편, 퀴즈의 경우에는 상황판단 모장의 퀴즈를 푸는 것과 함께 시중의 퀴즈책을 자기 전에 1~2개씩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4. 헌법

헌법의 경우에는 헌법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과목이기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이 안 잡혔던 과목입니다. 또한, 헌법과 언어논리가 같이 치러지기에 헌법이 불안하면 언어논리를 푸는 도중에도 계속 생각이 나고 제대로 집중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pass/non-pass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비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8년 헌법의 경우 제가 시험을 본 201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어 헌법으로 인해 1차 불합격의 고비를 마신 수험생이 많아졌음에 따라 준비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동흙 강사의 기본교재를 중심으로 헌법공부를 하였습니다. PSAT와 다르게 헌법은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하루 전까지 헌법을 계속 붙잡고 공부했었습니다. 특히 7급과 비슷하게 출제된다는 정보를 들었기에, 금동흙 강사의 기본교재를 참고로 하되 7급 문제를 구해 풀어보면서 헌법을 대비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의 경우 판례가 아닌 법조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보면, 7급의 헌법이 판례를 위주로 내는 것과는 약간 핀트가 다르다고 느껴지기에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Ⅲ. 과목별 공부방법 - 제2차시험

1. 경제학

경제학의 경우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학은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문제가 쉬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학 개념, 고차원적인 경제학적 사고가 요구된다기 보다는, 기본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기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시의 경우에는 이준구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되, 김진욱강사의 미시경제학zip, 황종휴강사의 트리니티를 거시의 경우에는 정운찬저 교과서, 김진욱강사의 거시경제학zip 황종휴강사의 트리니티를 보면서 각각의 경우에서 어떻게 개념을 설명하는 게 다른지,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답안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학이 답을 맞으면 점수를 주고, 답이 틀리면 점수를 잃는 과목이기에 정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맞았다 하더라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합격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프, 수식, 설명이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3순환기간에 스테디를 조직하여 매일 아침 모의고사 답안지를 쓰며 답안지 작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순환 모의고사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을 스테디를 통해 보충하고, 스테디 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암기를 통해 논점의 숙지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문제가 어떤 논점을 묻는 것인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설과 판례가 어떠한지에 대해 전반적인 암기가 없다면 답안의 작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에 약하기 때문에 행정법의 많은 논점을 지속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의 강의 순환을 따라가면서 강사의 서브노트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2차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잊어버릴 수도 있기에 이후, 행정학, 정치학, 선택과목강의를 수강하는 때에도, 자기 전이나 실감을 듣기 위한 줄을 선 장소에서 계속해서 서브노트를 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정법에서 서브노트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답안 작성은 답안지의 분량, 문제와의 적합성 때문에 쓰는 부분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안작성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특히 각 논점이 몇 점 분량이 되는지, 어떻게 써야할지 머릿속으로 일부분 구상을 하고 써야하는데, 이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답안을 작성함으로써 체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순환 시기 다른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를 추가적으로 풀어보는 한편, 서브노트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압축, 상세하게 써야하는지 구상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답안작성을 연습하였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행정학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까지가 오래 걸렸던 과목입니다. 경제학, 행정법과 달리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험준비를 해야하는지 갈피를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느껴진 과목이기도 하였습니다.

행정학은 많은 이론과 현실적인 사례가 있고, 이를 얼마나 답안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학원 강사님의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행정학 이론과 사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후 별도로 모르는 행정이론이나 행정학적지식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르는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가령 행정학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례로 아름다운 가게등을 찾는 한편 활동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인지, 어느정도 답안작성은 가능했으나 전반적인 갈피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강의시스템이 잘 구비되어있는 7급의

김중규강사의 행정학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수험적합성측면에서 7급 강의를 듣는 것이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인 행정학 이해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17년 시험에서 행정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 다음에는 3순환 기간에 답안지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면서 이론과 답안지현출능력을 연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3순환기간에 강사의 모의고사를 풀이하면서 답안지와 행정학적 지식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의 경우에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내 강사분들의 강의 또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고, 공부 분량만 생각한다면, 2차시험의 5개 과목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의 경우 저는 김희철 강사의 예비순환 교재인 펀더멘탈 정치학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른 합격하신 분들이 추천해주신 교수님들의 책들 또한 고려해보았지만, 수험서로 압축되어있지 못 하고, 읽으면서 따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불편함 때문에 펀더멘탈 정치학을 보게된 것 같습니다. 물론, 펀더멘탈 정치학도 부족한 점이 많으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진행하는 논문을 중심으로 한 국정치상황의 현실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한편, 국제정치부분에 대해 보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우선, 국제정치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희섭 강사의 강의를 수강하는 한편, 국제정치의 사례에 대해 직접 인터넷으로 조사하면서 국제정치를 대비하였습니다. 한편, 논문집을 정리한 것을 복사집에서 구매해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지식을 보완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교재뿐만 아니라, 서브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시사랑에 나와있는 서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량이 워낙 많기에 이를 정리해 놓은 서브노트를 참고한다면, 분량을 줄이는 한편 꼭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선택과목 - 지방행정론

선택과목은 여러 과목중에 자신이 하나의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주로 하는 과목보다는,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지방행정론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론은 상대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등 시험관련 자료 및 정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행정론에서 유일하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최윤경 강사의 강의를 따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수과목이기에 강사님이 직접 첨삭을 해주시는 한편, 자료의 정리 또한 잘 되어있기 때문에 공부방향이 엇나가지 않도록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별다른 논문을 직접 찾아 보지 않고, 수업시간에 배부받은 논문만 준비했음에도 2차시험으로 지방행정론을 준비하는데 별 다른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IV. 제3차시험 - 면접

1. 총체적인 준비방법

2차시험 결과가 나기전까지는 2차합격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발표전에는 별다른 면접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후년을 기약하며 어떻게 할지 막연한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2차합격소식을 들은 이후에, 저는 행시사랑이라는 카페에서 면접스터디를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2016년 합격하신 선배분들이 합격소식을 듣고 전화를 주셨는데, 이 때 행시사랑에서 스터디를 조직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 전국직렬을 구하는 피셋 스터디를 들어가 면접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스터디는 면접스터디원중에 면접을 준비한 인원이 없었으며 면접진행과정이 작년과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터디원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합격하신 선배분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작년과 다른 진행과정이지만, 기본적인 틀 정도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면접에 대해 아는 것이 아예 없는 것 보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침시간에는 오전에 집단심화토의를 한다고 하기에, 9명의 스터디원을 6명의 토의자 및 3명의 면접관으로 나누어 토의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면접위원 질의응답시간이 40분 추가되었기 때문에, 면접관이 토의자의 토의내용에 대해 토의가 끝난 후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무역량면접에 집중하여 스터디를 운영하였습니다. 직무역량면접은 개인 발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개인발표는 특정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

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개인발표에서 협동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라는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행정학에서 배운 협동조합에 대해 공무원 보고서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인데, 이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합격하신 선배분의 조언에 따라 작성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시간에는 공직가치 및 인성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공직 가치 및 인성부분은 개인의 경험을 묻는 질문을 하거나,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명의 스터디원이 3명씩 나누어 각각 작년, 제작년 기출질문들을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2. 면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면접은 2차 합격발표가 난 후 준비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있으실 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씩 가지신다면 향후 면접준비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면접 진행과정은 면접준비를 통해 습득할 수 있으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봄으로써 효과적인 것이지, 당장의 면접준비를 위해 급하게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향후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공무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나마 미리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V. 마치며

수험생 여러분들이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왜 이 길을 택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한편, 합격가능성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불안감에 빠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이겨낸 경우에만 합격으로 이어지며,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버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합격 후의 생활이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분들 또한 저와 같은 합격의 영광을 누리며, 합격수기를 작성하면서 이후 진입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